

# “엘리트 체육 위주 육성방식 재검토”

문 대통령 “성적지상주의서  
인식 전환 노력할 것”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을 만들어낸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는 요청에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밝혔다.



중심을 잡고 인식 대전환을 이끌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아울러 교육부와 문체부에는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등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체육인 자격관리 강화 방안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체육인들과 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훈련 중인 봅슬레이 대표팀.



(사진=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제공)

## “메달 2개 목표”… 한국 썰매, 동계올림픽 금빛 질주 약속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내달 중국 연청서 훈련 소화

한국 썰매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또 한 번 금빛 질주를 약속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29일 비대면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내년 예정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다음달 5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연청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10월 26일과 27일 열리는 소규모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중국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베이징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취소돼 이번 훈련이 현지 트랙 적응에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이후 11월 중순부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과 북아메리카 컵 등에 참가한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순 이번 시즌 합산 성적을 토대로 올림픽 쿼터가 결정된 뒤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나선다.

조인호 대표팀 총감독은 “썰매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아 모노볼 등에서 깜짝 메달을 기대한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베이징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찬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은 “성적에 따라 최대 2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준비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오길 응원한다”고 독려했다.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강원도청)도 “목표는 메달”이라고 외치며 “다음 달에 있을 베이징 훈련에서 주행 감각과 특성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최대한 상위 랭킹을 유지해 올림픽 쿼터에서 좋은 위치를 가져갈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을 딴 원윤종은 “2인승과 4인승 모두 좋은 성적을 가져오기 위해 훈련해왔다”고 말했다.

변수는 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연청 트랙이다. IBSF가 연청 트랙 영상을 각국 경기 단체에 배포했지만, 선수들이 트랙을 완전히 파악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원윤종은 “현재로서는 트랙을 직접 가서 최대한 빨리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주행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의 날씨가 아직은 슬라이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외 출국 전에 감각을 최대한 익히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면서 “그래도 환경을 운운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연청 트랙 적응이 관건이 가운데 대표팀은 이번 중국 현지 훈련에서 약 30회 정도 주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 이점을 안고 있는 중국 대표팀은 이미 300회 이상 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윤종은 “중국이 지난 시즌 월드컵이나 국제대회를 포기하고 자국에 머물렀는데, 한 시즌 동안 주행 훈련에 집중했다면 기본 300회 이상은 타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모노볼에 나서는 김유란(강원도청)도 깜짝 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스타트 격차를 줄여서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톱10에 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봅슬레이와 모노볼 2개 종목에 나서는 김유란은 “체력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원)윤종 오빠가 몸 관리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모노볼은 썰매가 가벼워 조정이 예민하다. 하지만 변수가 큰 만큼 메달 가능성도 크다. 김유란은 “감독님 말씀처럼 스타트에서 격차만 줄이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 태권도 위상 높이기 ‘맞손’

무주군-의회-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전문교육 필요성 공감대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해연)와 무주군(문현중 행정복지국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손을 맞잡고 태권도 홍보를 비롯,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28일 태권도원을 방문해 무주군 관계자와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무주군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자리에서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국제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미흡했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태권도 상징인 무주군과 태권도원을 알리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가 영구종목으로 유지되기 위해 태권도 정신, 역사 문화 교육이 가능한 전문 태권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이 일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아니라 국가사무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태권도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과 태권도 홍보에 대한 무주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요청을 받고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군과 모든 일을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태권도원과 무주군은 한식구이며 절대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문현중 무주군 행정복지국장은 오응환 이사장이 취임 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세계화와 태권도원 혁신을 위한 여러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태권도원 활용방안을 모색해 무주군 관광중흥발전계획에 반영하려 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탁구·족구·볼링… 김제서 다채로운 생활체육대회 열린다

김제시가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 주민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8일과 29일, 약 600여명이 참가한 제14회 김제시장애 동호인초청 전국탁구대회와 제3회 김제시장애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매주 탁구, 유도, 족구, 궁도 등 2,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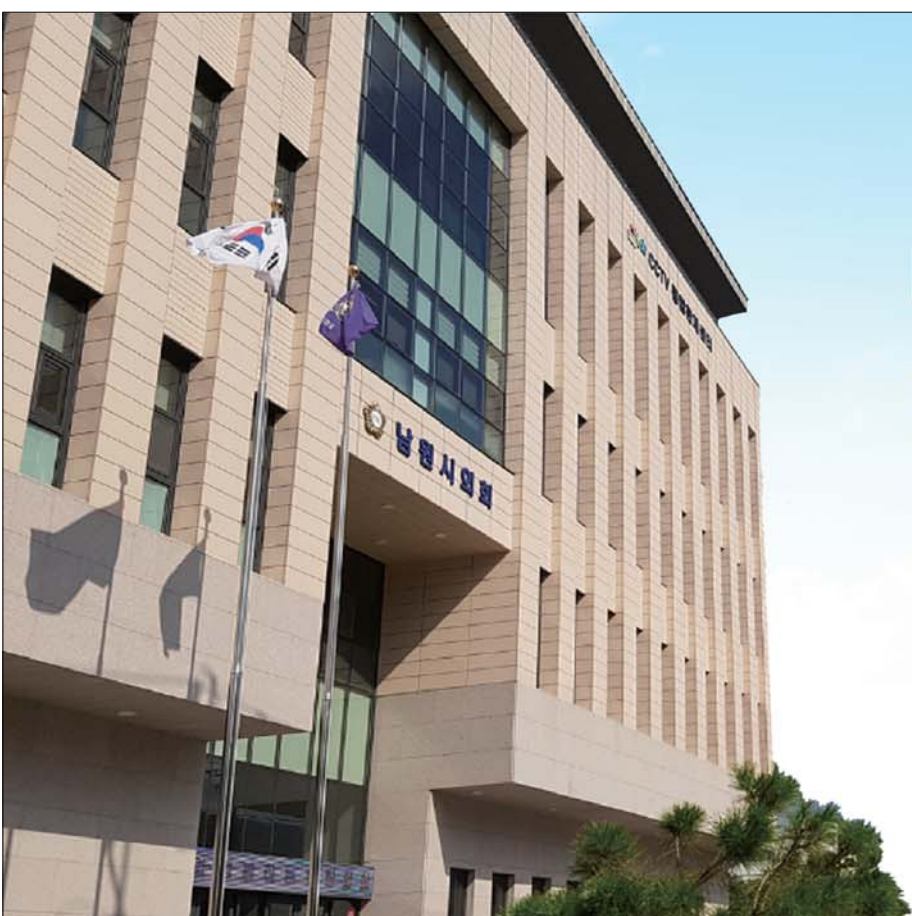
계획이다. 또한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김제시평선축제를 기념해 족구와 야구, 당구, 볼링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국에서 초청한 동호인들이 김제에 방문하여 지평선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참가자, 심판, 운영진들의 자가 문진표 작성, 참가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수

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체육시설을 활용,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을 김제에 유치하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지역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동호인 및 체육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생활체육진흥에 큰 몫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김제의 경제도약 실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의회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